

통합특별법 ‘ 전면 개정’ 추진...연내 개정안 발의

전남광주시, TF 구성...이달 초안 마련

권한 이양·재정 지원 등 미반영 보완

축소 특례·미비점 개선...신규 발굴

10-11월 시의회 동의 후 정부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특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구성해 이달 중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연내 발의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은 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별시는 통합특별법이 제정 당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선(先)통합 후(後)보완’ 기조로 마련된 만큼 근본적인 개정을 통해 법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는 조만간 행정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법 특례 보완·발굴 및 특별법 개정 TF’를 꾸려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TF에는 각 특례 관련 주무 실·국과 전남·광주연구원, 시의회 사무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각 실·국별로 소관 특례를 재점검하는 한편 산하기관과 협회·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개정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 입법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특별시의 권한 이양·재정 지원 등 현행 통합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축소된 과제를 비롯해 현행 특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래 성장산업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특례도 추가 발굴한다.

TF는 개정 과정을 집중 검토해 9월 중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10-11월 시의회 동의와 정부지원위원회 제출 절차를 실행할 예정이다.가급적 연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앞서 특별시는 학술 세미나와 개정 전문가 포럼을 열고 시민·전문가 소통 플랫폼을 개설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재 시·구·군과 실·국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개정 과제 발굴과 TF 구성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민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TF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발굴도 다 안 됐다는 게 조금 걱정된다”며 특별법 개정 과제 발굴과 개정안 마련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변은진기자



남구 ‘제1차 민선9기 주민배심원단 워크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2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의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제1차 민선9기 주민배심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공〉

서방천 ‘상습 침수’ 걱정 덜어낼 첫걸음 뗐다

전남광주,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오늘부터 18개월...시설관리대장도 작성

정준호 “주민 안전 위해 끝까지 쟁길 것”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북구 서방천·석곡천의 침수 피해 예방과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 대상은 서방천 1.14km와 석곡천 1.68km 등 총 2.82km 구간이다. 용역비는 3억4천여만원이

며, 3일부터 18개월 동안 진행된다.

서방천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수위 상승과 주변 지역 침수에 대한 주민 불안이 이어져 왔다.

침수 피해를 경험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하천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하천 유역과 시설물 현황, 홍수량, 하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침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천시설의 위치와 상태, 관리 정보를 체계화

한 하천시설관리대장도 함께 작성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재해 예방과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 의원은 “지난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는 비가 올 때마다 혹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남아 있다”며 “이번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비 방향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시행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과정을 끝까지 쟁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광주경찰청장 양영우·전남경찰청장 김호승

고범석 전남청장, 서울청장으로

향후 인사도 ‘향피제 확대’ 적용

양영우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광주경찰청장에, 김호승 충남경찰청장이 전남경찰청장에 각각 보임됐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내정에 따른 후속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양영우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양 신임 청장은 1969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청주 신흥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경찰대 87기다.



양영우

김호승

을 거쳤으며, 경무관 승진 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대통령경호처 경찰관리관 등을 지냈다.

김영근 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이동한다.

전남경찰청장에는 김호승 충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1969년 대전 출생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간부후보 43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거쳤다. 2024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기북부경찰청장을 맡은 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충남경찰청장으로 근무해왔다.

고범석 현 전남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장에 보임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이는 출생지와 총경·경무관 승진 당시 근무지 등을 고려해 연고가 있는 지역을 피하도록 한 인사 원칙이다.

/오지현기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3호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상업용지 공급공고

○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진원면 일원

○ 공급토지 : 총 3필지

공급용도	기획지번호	면적(㎡)	공급예정금액(원)	건폐율	용적률	공급방법
상업시설	2-1	2,004	5,671,320,000	60% 이하	1,000% 이하	경정입찰 (온비드)
	2-2	1,927	5,299,250,000			
	3-1	1,894	5,360,020,000			

※ 반드시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일정	25.09.14.(월) ~ 26.09.15.(화) 10:00 ~ 16:00	26.09.16.(수) 10:00 (낙찰자 결정: 14:00 이후)	26.09.18.(금) 10:00~16:00 (단, 12:00~13:00 제외)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s://www.onbid.co.kr)	광주도시공사 분양팀 입찰집행관 PC	광주도시공사 분양팀 (광주 서구 시청로 26, 1층)

(자세한 내용은 공급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용지분양관련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분양팀(14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지평동 1247-4) ☎ 062-600-6662

☎ 지구단위계획 등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개발사업팀 ☎ 062-600-6741

☎ 입찰 관련 :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mcc.co.kr) > 공사소식 > 분양공고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3일

정경·세상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62-650-2022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